

## 이순신과 넬슨 비교

|  |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| <p>이순신(李舜臣)<br/>(덕수(德水) 이씨, 字는 汝諧)<br/>1545. 3. 8.~1598. 11. 19.</p> <p>16세기 말<br/>(약 400년 전)</p> | <p>인적 사항</p>      | <p>호라티오 넬슨<br/>(Horatio Nelson)<br/>1758. 9. 29.~1805. 10. 21.</p> <p>18세기 말 ~ 19세기 초<br/>(약 200년 전)</p> |  |
| <p>조선중기 유교문화 발전기에 양반 사족(士族)의 후예로 탄생 : 22세 이후 무과 부유하지는 않지만 내력 있는 명문가 출신</p>   |   | <p>탄생과 성장</p>     | <p>영국의 세계 제해권 제패시기 하급성직자의 여섯 째 아들로 탄생 : 13세 예비해사 입학 가난하지만 귀족적인 가풍 속에 성장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군령(軍令), 군정(軍政) 등 스스로 모든 방면에서 활약한 CEO형 지휘관<br/>임진왜란 극복의 해전 명장 :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구하고, 모국어를 지켜냄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<p>주요 활약 (결과)</p> | <p>주로 군령(軍令) 분야 활약<br/>나폴레옹의 영국 침략을 좌절시킨 영웅 : 해가 지지 않는 나라, 영어의 세계화 기여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거북선[龜船] : 이순신 전력 기획 및 제작 길이 34.2m(저판 20m), 폭 10.3m 승선인원 130여명 화포 14문 장착 / 선상에 철갑 송곳 장착</p>  |   | <p>주력 전함 (旗艦)</p> | <p>빅토리(Victory)호 : 국가에서 제작 길이 56m(용골 46m), 폭 16m / 약 4배 승선인원 850명 / 6.5배 함포 104문 장착 / 7.4배</p>           |   |
| <p>거북선으로 적 지휘함부터 타격<br/>학익진 -포위섬멸전(결전)<br/>명의 금토패문(禁討牌文), 해전 금지 명령</p>   |   | <p>전략 전술</p>      | <p>돌격과 함포 공격 통한 지휘부 선제공격 전술<br/>국가에서 해전을 독려</p>  |   |
| <p>1차 1587년 8월, 여진족과 전투 후 5개월<br/>2차 1597년 2월말 삼도수군통제사 파직 하옥<br/>4월 1일 출옥 ~ 칠천량해전 직후까지 4개월</p>   |   | <p>백의 종군</p>      | <p>1800년 지중해 함대사령관 재직 중 해군성에 대한 보고 불철저로 해임(1801년 복귀)<br/>※소신을 지킨 넬슨을 해임시키려고 상관들이 만들어 낸 죄명</p>            |   |
| <p>1587년 8월 여진족 전투시 허벅지 화살<br/>1592년 5월 29일 (사천해전) : 왼쪽 어깨(左肩) 관통상(銃傷)</p>   |   | <p>부상 전력</p>      | <p>1794년 칼비전투 : 오른쪽 눈 실명<br/>1797년 카나리아 諸島の 테네리페 공격 : 오른 팔 잃음</p>  |   |
| <p>근거리에서 쏜 적의 유탄이 겨드랑이 아래(腋下), 가슴 부위에 명중하여</p>   |   | <p>戰死 상황</p>      | <p>프랑스 저격병이 근처 돛대 위에서 쏜 총탄을 가슴에 맞고 치명상 입음</p>  |   |
| <p>戰方急 慎勿言我死 (전방급 신물언아사)<br/>전투가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.</p>  |   | <p>戰死 時 남긴 말</p>  | <p>“신에게 감사한다. 나는 내 의무를 다했노라.”</p>  |   |
| <p>조선의 정궁 경복궁 정면에 세운 동상으로 분상 7m, 좌대 12m, 전체 19m이고, 정남향.<br/>(1968. 4. 27. 박정희 대통령, 김세중 조각)</p>   |   | <p>기념 동상 (공원)</p> | <p>영국 정치의 중심 웨스트민스터 소재 트라팔가 광장에 넬슨像을 올려놓은 56m 높이의 기념비가 프랑스 쪽을 향하고 있음.(1841년 완공)</p>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영국 발라드 제독의 평 : 영국 사람으로서 넬슨과 견줄만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긴 항상 어렵다. 그러나 그렇게 인정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, 그 인물은 바로 단 한번도 패한 적이 없는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 제독뿐이다.</p> |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|
| <p>일본 도고(東郷平八郎) 제독의 평 : 영국의 넬슨은 군신(軍神)이라고 할만한 인물은 못된다. 해군 역사상 군신이라고 할 제독이 있다면 오직 이순신 장군뿐이다. 이순신 장군과 비교한다면 나는 일개 하사관도 못된다.”</p>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|